opusdei.org

## 자선, 즉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분리될 수 없 습니다.

단장님께서 11월 13일에 보내 신 메시지.

2025-11-13

여기에서 다운로드하세요 11월 13일 메시지

사랑하는 나의 자녀 여러분.

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 주시길 바 랍니다.

매일같이, 다양한 방식으로, 우리 모 두는 현재의 전쟁, 불의, 가난, 그리고 세계 곳곳의 부족함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소식을 접합니다. 성 호세마리아의 이 말씀 을 다시 묵상하고 되새겨 보길 권합 니다. "고통과 불의에 대항하지 않고, 그 고통과 불의를 감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개인이나 사회는 그리 스도 성심의 사랑과 너무도 멀리 떨 어져 있습니다.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들의 다양한 해결책을 찾고, 이 를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 완벽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인 류에 봉사하겠다는 같은 열망 안에서 하나로 일치해야 합니다. 그렇지 않 다면 그런 사람들의 그리스도교는 예 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삶도 아닐 것입니다. 그런 그리스도교라면 하느 님과 인간을 기만할 뿐입니다." (그리 스도께서 지나가신다, 167).

세계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거대하기 때문에,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 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 다.

그러나 아무리 멀리 있거나 우리와 무관해 보이는 소식이라도 우리는 감 동을 받아야 합니다. 왜냐하면 그리 스도와 함께,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는 온 세상을 우리의 유산으로 느끼 기 때문입니다(참조: 시편 2,8).

신앙은 기도가 국경을 초월한다는 점을 통해 우리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확신시켜 줍니다. 개인적으로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는 어렵겠지만,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생각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.

세상에는 물질적 결핍이 많을 뿐만 아니라, 때로는 더 가혹한 고독, 오해, 진정한 사랑의 부재로 고통받는 사람 들도 많습니다. 레오 14세 교황이 설 명하시듯이 "가난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: 물질적 생계 수단이 없는 이들의 가난,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자신의 존엄성과 능력을 표현할 수단 이 없는 이의 가난, 도덕적·영적 가난, 문화적 가난, 개인적·사회적 취약 상 태에 놓인 이의 가난, 권리도 공간도 자유도 없는 이의 가난." (Dilexi te, n. 9).

또한 우리 아버지께서 오래전 우리에게 쓰신 말씀을 기억합시다: "우리의사명은 무지와 빈곤이 점점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며, 우리는 어디서나 이에 기여하려 노력할 것입니다." (편지 15, n. 193).

하느님께 감사하게도, 수많은 사람들 -오푸스 데이의 많은 이들도 포함하 여- 다섯 대륙의 특히 도움이 필요한 환경에서 복지 및 교육 활동을 펼치 고 있습니다. 한편, 우리 모두는 기도 와 봉사 정신으로 이루어진 일, 그리 고 가능한 물질적 도움으로 이 거대 한 일에 개인적으로 협력하려 노력합 니다.

타인의 필요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그리스도인 삶의 본질적인 요구 사항 입니다. 자선, 즉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분리될 수 없 습니다. "아직 하느님을 보지 못하는 너도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바라 볼 자격이 있을 것이다. 이웃을 사랑 함으로써 네 시선을 정화하여 네 눈 이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때 문이다"(성 아우구스티노, 요한 복음 강해 17, 7-9). 그리고 우리는 이웃이 모든 인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.

사랑을 담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.

여러분의 아버지 페르난도.

로마, 2025년 11월 13일.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 jaseon-jeug-sarame-daehan-sarangeunhaneunime-daehan-saranggwabunridoel-su-eobsseubnida/ (2025-12-11)